

15~17세기 族譜의 編制 방식과 성격 — 序跋文의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

권 기 석*

-
- | | |
|---------------------|-----------------------|
| 1. 머리말 | 2) 同姓譜로의 변화 |
| 2. 자료의 현황과 특성 | 3) 소규모 족보의 통합과 別譜의 출현 |
| 3. 系譜觀念과 編譜體制의 변화 | 4. 맺음말 |
| 1) 유교적 譜牒文化의 수용과 屈折 | |
-

초록: 한 성씨 전체 또는 한 계파의 혈연관계를 기록한 가계기록인 족보는, 양반 사족층의 유교적 도덕과 의례를 遵行하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로서, 조선시대의 유교적 교화의 사회적 확산이라는 역사적 변화를 보여준다. 필자는 한국사에서 족보라는 가계기록이 본격적으로 출현하여 지배계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어간 시기인 15~17세기의 족보의 序文과 跋文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족보의 간행 추이와 성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족보의 서문에 나타난 족보의 편집방식과 제작과정의 분석을 통해, 제작자들의 계보관념과 혈연의식을 재구성하고, 조선시대 사족층의 인간관계망의 변화 양상을 해명하고자 한다.

조선전기의 족보 편찬자들은 중국의 譜牒文化를 이미 접하고 있었고, 중국의 유명한 족보를 모범으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수록 범위는 高祖의 父系 후손만을 수록 대상으로 삼는 ‘小宗法’을 채택한 중국의 족보와 달리, 남녀의 계보를 구분하지 않고 추적 가능한 범위까지 무제한 수록하는 방식이 흔히 채택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内外孫을 구분하지 않는 당시의 일상적인 친족관념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17세기 이후 종법 실천의 의무감이 강화되고 同姓이 곧 同族이라는 관념이 확대되면서 족보에서 異姓親이 배제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짝하여 동성친의 수록범위는 지역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널리 확대되었고, 이전까지 동족으로 여기지 않았던, 계보 연결이 확인되지 않거나 본관이 다른 동성까지도 ‘別譜’ 등의 형식으로 하나의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족보로 포괄하고자 노력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와 같은 족보의 편찬 방식을 통해 사족사회의 인간관계망의 구조가 단순한 中央官人들의 ‘同類意識’ 수준을 넘어 ‘同姓’을 매개로 하여 지역적인 유대가 확대되고 신분적으로도 다양한 층위를 넘나드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핵심어: 족보(族譜), 서발문(序跋文), 내외보(內外譜), 동성보(同姓譜), 별보(別譜), 인간관계망

1. 머리말

한국에서 오늘날까지도 발간되고 있는 族譜는 한 성씨 전체 또는 한 계파의 자손을 시조에서부터 발간 당시까지 출생한 인물을 수록하고, 그 혈통 및 혼인관계를 명시한 家系記錄이다. 현재의 족보도 조선후기 이래의 門中 문화의 영향으로, 같은 성씨와 본관(이하 ‘姓貫’으로 並稱)이면 곧 同族이라는 의식에 기반하고 있으며, 시조를 기점으로 성관이 같은 부계 자손을 구성원으로 하는 친족집단, 즉 宗族¹⁾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전근대 한국의 친족제도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오늘날 한국의 전통가족제도로 당연시되고 있는 父系 宗族文化가 실은 17세기 이후 유교적 가족 의례와 종법적인 친족관념이 급속히 확산된 결과로서 한국사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는 비교적 近世에 해당하는 최근 400여 년 동안에 보편화된 현상임이 잘 알려져 있다.²⁾ 조선전기까지는 父邊과 母邊, 父系와 非父系, 그리고 本族·外族·妻族이 현실적인 親疎관계와 家族生活의 중요도에서 비슷한 비중을 갖는 혈연의식이

1) ‘宗族’은 ‘單系出系律에 의하여 이룩된 出系集團’을 뜻하는 인류학적 용어 lineage의 번역어로 흔히 사용되며, 유사한 개념으로 clan(‘氏族’으로 번역)이라는 용어도 존재한다(李光奎, 1992 『家族과 親族』, 일조각, 75~77면). 종족과 씨족 개념을 한국의 가족제도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는 李光奎, 『한국의 家族과 宗族』(대우학술총서 인문사회과학 40), 민음사, 41~45쪽을 참고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宗族을 인류학적인 용어로서 갖는 의미와 아울러 유교적인 제사와 가계 계승을 위한 친족조직 원리인 宗法에 의해 조직된 친족집단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2) 17세기 이전에 부계 위주의 친족조직 원리가 지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규명한 선구적인 연구자로서 崔在錫을 들 수 있으며, 그의 가족제도에 관한 일련의 연구는 『韓國家族制度史研究』(1983, 一志社)에 수합되었다.

지배하는 사회였으며, 특정한 조상을 기준으로 父系의 원리로 구성되는 정형화된 영속적인 친족집단이 조직되지 않고 한 개인을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의 親屬 사이의 동심원 형태의 血緣紐帶만이 존재하였다.³⁾ 즉 오늘날 볼 수 있는 형태의 족보의 등장과 그 기록양식은 어느 시기에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변화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한편 오늘날 전해지는 거의 대부분의 족보는 이른바 ‘兩班族譜’ 또는 ‘士族譜’라는 것이 특징이다. 족보에 수록된 인물들이 기록상의 내용과 같이 모두 실제로 양반이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적어도 족보를 제작한 사람들이 양반이거나, 현실적인 신분이 양반이 아니더라도 양반문화를 모방하고 공유하고자 노력한 계층인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족보는 사족사회를 중심으로 한 宗族 문화의 확산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록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족보는 주로 친족제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한 소재로서 간단히 언급되거나, 연구대상 인물의 기본 정보와 가족관계를 알려주는 역사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족보라는 간행물 자체를 연구의 주제로 삼아 족보의 내용과 성격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연구⁴⁾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

3) 盧明鎬, 1979 『山陰帳籍을 통해 본 17世紀初 村落의 血緣樣相』 『韓國史論』 5; 盧明鎬, 1995 『(고려시대) 가족제도』 『한국사』 15, 국사편찬위원회.

4) 宋俊浩, 1980 『韓國에 있어서의 家系記錄의 歷史와 그 解釋』 『歷史學報』 87; 崔在錫, 1979 『朝鮮時代의 族譜와 同族組織』 『歷史學報』 81; 崔在錫, 1981 『族譜에 있어서의 派의 形成』 『민족문화』 7(최재석의 연구는 저서 『韓國家族制度史研究』에 재수록됨); 權寧大, 1981 『成化譜攷』 『學術院論文集 제20집 — 人文·社會科學篇 —』, 대한민국학술원; 李樹健, 1992 『朝鮮前期 姓貫體系와 族譜의 編纂體系』 『朴永錫教授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이수건, 1994 『朝鮮後期 姓貫意識과 編譜體制的 變化』 『九谷 黃鍾東教授 停年紀念 史學論叢』; 이수건 2003, 『한국의 성씨와 족보』 (한국의 탐구_25), 서울대학교 출판부; Edward W. Wagner, 『1476年 安東權氏族譜와 1565年 文化柳氏族譜 — 그 性格과 意味에 대한 考察 —』 『石堂論叢』 15, 1989, 동아대학교 석당전통문화연구원; 金龍善, 『高麗時代의 家系記錄과 ‘族譜’』 『李基白先生古稀記念韓國史學論叢』, 1994, 일조각; 朴丙鍊, 『韓國의 傳統社會와 族譜읽기 — 葛藤과 一體化, 差別과 同化의 二重의 컨텍스트 —』 『藏書閣』 1, 199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成鳳鉉, 『固城李氏 『先世外家族譜』와 『八高祖圖』 檢討』 『古文書研究』 24, 2004, 한국고문서학회; 심승구, 2000 『朝鮮初期 族譜의 刊行形態에 관한 研究』 『國史館論叢』 89, 국사편찬위원회; 오영선, 2001 『조선초기 家系記錄에 대한 일고찰』 『典農史論 — 松籃李存熙教授停年紀念號 —』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車長燮, 1997 『朝鮮時代 族譜의 編纂과 意義 — 江陵金氏 族譜를 중심으로 —』 『朝鮮時代史學譜』, 조선시대사학회; 차장섭, 2002 『조선시대 족보의 한 유형 — 삼척김씨 족보를 중심으로 —』 『大丘史學』 67; 차장섭, 2006 『綾城具氏 族譜의 刊行과 그 特徵』 『韓國史學報』 22(高麗史學會).

다. 주로 족보의 계보기록 방식에 따라 족보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친족 관념과 계보의식이라는 측면에서 각 유형의 특징을 설명하기도 하고,⁵⁾ 가계기록의 서지학적 특성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문헌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거나,⁶⁾ 특정 성관의 문중활동의 한 형태로서 족보 간행 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사례 연구도 이루어졌다.⁷⁾ 본고의 연구 방향과 관련하여 필자는 족보를 통해 전통시대 인간관계의 유형과 변화상을 읽어내고자 한 연구를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효시로서 송준호는 ‘씨족집단 전체의 합동계보’로서의 족보와 개인을 기점으로 수많은 조상을 찾아올라가는 ‘개별적인 가계기록’이 상이한 계보관념에 기반하고 있고, ‘나’의 씨족집단과 ‘남’의 씨족집단을 엄격히 나누는 전자의 계보관념과, 개인을 기점으로 다원적인 혈연관계가 병존하는 후자의 계보관념 중 어떤 것이 사회의 지배적인 구성원리를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회의 통합성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⁸⁾ 이러한 계보기록 형태에 따른 혈통관념의 상이점과 정치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해, 박병련은 가계와 혈통 추적을 통한 ‘조상과의 일체화’, 그리고 父系姓 중시의 씨족집단별 구성원리에 따른 ‘차별과 적대의 구조’ 등으로 개념화하여 설명하였다.⁹⁾

필자도 기본적으로 족보를 당시의 인간관계망을 반영하는 기록물로 보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족보의 편집방식과 수록내용은 제작자들의 계보관념과 혈연의식을 반영한다. 또한 족보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 족보에 수록된 ‘同族’의 혈연적 親疎와 지역적 분포의 범위는 당시 사족의 활동 근거지와 지역적 교류가 어느 범위까지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근거가 될 것이다. 족보를 통한 동족유대를 매개로 한 광범위한 사족사회의 인간관계망의 구축과 그 변화 양상은 조선시대 사족지배질서의 성립과 변화를 해명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간행된 족보의 서문을 분석하여 이러한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족보서는 일반적인 책의 서문과 같이 족보의 간행 목적, 간행 경위와 작업 과정, 족보 제작에 참여한 인원 등이 기재되어 있어서 족보 간행

5) 앞서 제시한 연구논저 중에서 송준호, 최재석, 박병련, 심승구의 연구가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6) 권영대, 앞 논문; 성봉현, 앞 논문; 오영선, 앞 논문.

7) 차장섭, 앞 논문 3편.

8) 송준호, 앞 논문.

9) 박병련, 앞 논문.

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살펴보기에 유용하다. 15, 16세기는 고려시대 이래의 非父系의 친족제도가 지속되던 시기로서, 내외손을 무제한 수록하는 전형적인 조선 전기적인 족보가 간행되었다. 17세기부터는 가족제도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부계 중심의 친족질서와 同姓만의 족보가 점차 확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고에서는 족보의 발생 및 확산과 함께 족보의 계보관념과 체제에 있어서 지대한 변화가 진행되는 15~17세기 300년간의 족보서문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족보 편찬의 통시적인 변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분석대상 자료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이어서 서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계보기록의 편제 방식과 수록 범위의 변화를 검토함으로써, 가계기록의 작성이 갖는 사회적 기능과 성격을 천착하고, 나아가서는 사족사회의 인간관계망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2. 자료의 현황과 특성

본고에서 다루는 족보 서문은 卷首에 실리는 ‘序’ 뿐만 아니라 卷末에 실리는 ‘跋’도 포함한다.¹⁰⁾ 序와 跋은 게재되는 위치와 글쓴이가 갖는 비중에 따라 달리 명칭이 붙었을 뿐, 내용이나 기능상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서문은 족보의 이념과 의의를 서술하는 데 치중하는 데 비해, 발문이 상대적으로 간행 과정과 관련된 실무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경향이 있으며, 발문보다는 서문의 필자가 더 비중 있는 인물인 경우가 많다.

필자는 족보 서문을 크게 3가지 형태의 자료에서 추출하였다. 먼저 鄭炳浣이 편집한 『韓國族譜舊譜序集』(1987, 서울 亞細亞文化社; 이하 『구보서집』으로 약칭)이다. 이 『구보서집』은 발간연대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사료되는 105姓, 369種의 구보서를 수집 정리한 것이다. 구보서의 출처는 國立中央圖書館에 소장된 족보 중에서 1945년 이전 收書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구보서집』에 수록된 17세기 이

10) ‘序文’이라는 용어는 통상적으로 문두에 실리는 ‘序’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으나, 序는 고전 문체의 하나로 사물의 전말과 내력을 진술하는 글을 의미하며 반드시 권두에 위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로 跋文은 ‘後序’라고도 불린다. 따라서 본고에서 지칭하는 족보서는 권두에 실리는 序와 권말에 실리는 跋을 모두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발문인 경우에는 【附表 1】의 ‘비고’란에 표시하였다.

전의 구보서 중에서 연대 고증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정확한 연대가 불분명한 것을 제외하여 총 72건을 분석하였다.

다음은 서문을 쓴 인물의 문집에 수록된 족보서이다. 『韓國文集叢刊』(民族文化推進會 編; 이하 『문집총간』으로 약칭)에 수록된 것을 대상으로 삼아 60건을 추출하였다. 『문집총간』에 수록된 것은 문집이 출간될 만큼 일정한 수준을 갖춘 문장가나 학자가 쓴 족보서문이라는 특성이 있다.

奎章閣韓國學研究院에 소장된 족보에 실린 구보서도 분석 대상이 되었다. 소장 족보를 추출하기 위해 四部分類를 기준으로 검색하였는데, 史部>譜系類>一般族譜로 분류된 족보류 중 1700년 이전의 구보서를 수록하고 있는 족보를 대상으로 하여 42건의 구보서를 추출하였다. 규장각 소장 족보 목록은 조선후기 규장각이 국가도서관의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출처의 족보와 구별되는 특성이 나타난다(【附表 2】 ‘규장각 소장 족보의 姓貫 분포’ 참조). 조선시대 규장각에서 수집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번호 ‘奎’는 만성보류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에, 安東金氏(金祖淳, 金履喬 등 편찬 참여), 大邱徐氏(徐邁修, 徐有薰, 徐命膺 등 참여), 東萊鄭氏(鄭元容 등 참여), 潘南朴氏(朴宗薰 등 참여), 豐壤趙氏(趙曦, 趙顯命, 趙寅永, 趙秉弼 등 참여), 豐山洪氏(洪象漢, 洪萬宗, 洪樂仁 등 참여), 海平尹氏(尹致定 등 참여), 驪興閔氏(閔致序, 閔應植 등 참여) 등 18~19세기의 대표적인 ‘京華閥閥’ 성관(대체로 西人-老論 계열)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유력 가문 족보의 국가적 수집이 유력한 명문세가의 국가적 공인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족보 발간이 갖는 정치적 의미와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되는 현상이다. 반면에 1910년 이후 일제시기와 해방 후에 수집된 일반고도서(문서번호 ‘古’로 분류)에 해당하는 족보는, 여러 유명한 가문의 대표적인 계보를 뽑아 하나의 책으로 편집한 ‘萬姓譜類’가 많고, 19세기초의 유력 성관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¹¹⁾

이 밖에도 전국의 대학과 도서관, 그리고 개인이나 문중이 소장하고 있는 족보가 다수 있으므로, 구보서문의 사례는 필자가 분석한 것보다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필자가 검토한 범위는 국내 최대의 족보서 보유기관으로 판단되는 국립중앙도서관¹²⁾과, 문집에 실려 있는 족보서, 조선후기 국가기관인 규

11) 문서번호 ‘古’에 속하면서도 유일하게 ‘유력성관’으로 분류된 『坡平尹氏舊譜』(一名 野城尹氏世譜, 古929.1 Y97j)도 경상도 盈海 지방의 한미한 일족의 파보이다.

12) 국립중앙도서관에는 2001년말 현재 6,432종, 26,575책의 古族譜를 소장하고 있으며, 그밖에

장각에서 수집한 유력 가문의 족보 등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대세를 파악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세 가지 출처의 족보서를 통합하여 연대순으로 배열한 것이 【附表 1】 ‘15~17세기 족보서 현황’이다.¹³⁾ 간행년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서문은 저자의 卒年에 맞추어 배치하였다. 족보서문의 총수는 149개였으며, 족보서문에 나오는 건수를 姓貫의 수로 환산한 결과 총 96개에 달하였다. 조사 대상 기간을 50년 단위로 나누어 족보서문의 연대별로 구보가 간행되는 추이를 족보서의 개수와 서문이 실린 족보를 발행한 성관수의 통계를 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시기별 族譜序 및 족보 제작 姓貫의 추이

		15세기 전반 (1401~1450)	15세기 후반 (1451~1500)	16세기 전반 (1501~1550)	16세기 후반 (1551~1600)	17세기 전반 (1601~1650)	17세기 후반 (1651~1700)	합계
序 文 數	舊譜序集	4	5	7	8	17	31	72
	文集收錄	0	5	4	5	20	26	60
	奎章閣所藏	0	7	3	4	14	14	42
	通算*	4	12	11	14	45	63	149
	姓貫數**	4	9	9	12	33	47	96***

* 通算'은 (구보서집 개수)+(문집수록 개수)+(규장각소장 개수)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세 출처의 개수를 합한 것에 동일한 족보서가 중복되어 검출된 회수를 뺀 것이다.

** 姓貫數'는 해당 기간에 족보서를 지은 성관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같은 성관에서 여러 개의 족보서를 지었을 경우 하나의 件數로 처리하였다.

***성씨 단위가 아닌 개인적인 가계기록이거나 여러 성씨의 聯合譜는 성관수 집계에서 제외하였다. 성관수의 '합계' 109개는 50년 단위로 나누어 놓은 각 기간의 성관수를 단순히 더한 것(4+9+9+12+33+47=114)이 아니라 다시 여러 시기에 중복되어 나타나는 성관의 수를 뺀 것이라는 점에 유의할 것.

도 서울특별시립정독도서관 족보실에 2002년말 현재 6,155권, 대구광역시립 두류도서관 족보자료코너에 2001년 12월 현재 5,451권이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그 밖에도 족보자료를 대량으로 수집하여 관리하는 기관으로 대전의 回想社 족보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등을 들 수 있다(이창수, 2002 『계보자료의 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33권 3호).

- 13) 필자가 검토한 족보서문의 출전은 이 표에 모두 정리해 놓았으므로, 이후 본고에서 족보서를 인용할 때 일일이 전거를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후대로 갈수록 점차 제작 건수가 늘어나는 경향성이 뚜렷이 나타나지만, 특히 17세기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이 두드러진다. 15세기와 16세기의 완만한 증가세에 비해 월등한 수준이라고 할 만하다.¹⁴⁾ 물론 여러 족보서의 기록에서도 확인되듯이, 16세기말의 壬辰倭亂으로 다수의 구보가 소실된 것도 16세기 이전 구보서가 많지 않은 요인의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족보의 발간이 사족사회 전반에서 부진하고 卿相에 해당하는 인물도 자신의 선대 계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토로하고 있는 여러 사례¹⁵⁾에서도 드러나듯이 족보 발간의 절대량이 적었던 것이 더 본질적인 이유라고 생각된다. 사족사회에서 족보 편찬의 풍조가 눈에 띄게 확산된 것은 17세기 이후의 일이었던 것이다.¹⁶⁾

14) 정병완의 『구보서집』을 토대로 구보서의 시기별 분포를 분석한 기존 연구에서도, 17세기 이후 족보의 간행이 급격한 단층을 이루며 증가하고, 그 후에도 19세기말까지 증가추세가 나타난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노명호, 1999 『한국사 연구와 족보』 『한국사시민강좌』 24, 92~93면).

15) 1476년의 『安東權氏成化譜』 서문에서는 동방에는 예로부터 종법과 보첩이 없어서 거가대족도 가승이 없어 수 세대를 전하는데 그치고 고증조부의 명호도 모르는 예가 있다고 하였다. (‘吾東方自古無宗法 又無譜牒 雖巨家大族 絕無家乘 纔傳數世 有不記高曾祖考名號者 子孫寢以乖隔 視同路人’) 成重性은 1493년의 창녕성씨 족보 발문에서 집안의 두 큰 어른이라고 할만한 堂兄인 政丞 成奉祖와 그 아우 參判 成順祖조차도 자신의 6대조 成松國 이상의 선조를 모르고 있는 것을 보고 發憤하여 족보 제작을 결심하게 된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1482년의 남원양씨 족보서에서 당시에는 ‘오늘날 사대부가에서도 족보를 소장하여 전하는 자가 드물다(今世士大夫家 鮮有藏族譜以傳者)’는 언급이 나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15세기에는 족보의 편찬은 몇몇 시대적 추이를 앞서나간 몇몇 선구적인 인물이나 집안에 국한되어 있었다. 16세기에 들어와서도 족보가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盧禎은 豐川盧氏 족보서(1536년)에서 중국에는 천한 사람들도 족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卿士도 그 선조를 모른다(在中國之人 雖陋商賤隸 尙有系譜 俾後我生者 得有所考 而況忝於卿士之裔 不能詳識其所自出 可乎)고 한탄하였고, 金安國(1478~1543)은 우리나라가 禮儀之邦으로서 中華之風을 숭상함에도 불구하고 족보만큼은 중국에 미치지 못한다(我東號稱禮義之邦 凡上之所以立政 下之所以爲俗者 舉尙中華之風 獨於譜牒一事 莫能致意 間或有修之者 類皆疏略 或中廢不續 故雖名門世族 多不識源本之所自來 況望其收宗族厚倫誼之道乎)고 언급한 바 있다(『慕齋先生集』 권11, 『陽川許氏先世系譜序』). 柳成龍도 1604년에 쓴 족보서에서 ‘금세의 사람은 비록 사대부라는 이름이 붙은 자도 왕왕 그 조상을 잊어 고증조 이상을 물으면 모르는 자가 있으니 그보다 먼 것은 논할 것도 없다(今世之人 雖名爲士大夫者 往往忘其祖 問其高曾以上 已有曰不知者 其遠者 無論也)’고 말한 바 있다(『西厓先生文集』 권17, 『南陽洪氏世譜序』).

16) 崔錫鼎은 1678년의 豐壤趙氏 족보서에서 ‘근세 사대부 집안에서 조금씩 譜牒을 修明하는 것을 일삼고 있다’(近世士大夫家 稍稍以修明譜牒爲事 余每喜聞而樂道焉)고 하여 족보의 확산 추세가 體感할 수 있는 수준임을 밝힌 바 있다.

족보서문을 연구 자료로서 이용할 때 유의해야 할 특징이 있다. ‘舊譜序’라는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서문이 수록되어 있던 원래의 족보가 아닌 후대 족보에 轉載된 것이어서, 원 족보의 書名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¹⁷⁾ 옮겨 적는 과정에서 오탈자나 단어 또는 문구의 변조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¹⁸⁾ 또한 대개의 경우 원 족보의 실물을 접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서문에서 말하는 족보의 편제나 기재방식을 실제 제작된 결과물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례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 규장각에 소장된 족보의 경우도 15~17세기에 간행된 판본은 전체 107건(규장각 四部分類 중 ‘一般族譜’로 분류된 것) 중 4건에 불과하다.

서문의 내용이나 문구는 套式化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형식상 큰 차별성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족보의 이념과 도덕적 의의에 관한 부분은 거의 동일한 중국의 모범적 사례를 들면서 유사한 비유와 어구를 나열하는 경우가 많다. 대개의 서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첫째, 족보의 이념과 의미를 약속한다. 대개 중국의 저명한 족보를 모범적인 사례로 들고 있는 경우가 많다. 둘째로 始祖와 성씨의 유래, 그리고 선대의 자랑할 만한 顯達한 조상의 사적을 소개한다. 셋째로 족보 간행 작업이 이루어진 과정과 경위를 소개하며, 족보를 편찬하거나 제작비용을 마련한 여러 자손의 명단과 그 활약에 대해 서술하기도 한다. 서문의 저자가 자손의 한 사람으로서 족보 편찬을 주도한 당사자인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문을 청탁 받게 된 계기와 족보를 발간한 가문과 자신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이 첨부된다.

이처럼 대개의 서문이 일정한 격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유사한 형식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계보의식의 형태와 편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차이점과 사례별 특성을 포착할 수 있다. 서문에서 소개되는 개별 사례의 변화 추이와 특성을 통해 서문이 최초에 실린 원 족보의 계보관념과 편보체제, 나아가서는 간행 양상을 둘러싼 사회사적 변화를 읽어내는 것이 가능하다.

17) 일례를 들면 1615년에 成文濬이 쓴 창녕성씨 족보의 발문은 문집에는 ‘昌寧成氏族譜跋’(『滄浪先生文集』 권4)이라고 되어 있어 ‘창녕성씨족보’라는 족보의 제목과 함께, 跋이라는 명칭을 통해 편찬에 실렸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후대 족보에서 轉載한 『구보서집』에는 ‘丙辰舊序’라고 기재되었는데, 이는 후대 자손의 관점에서 ‘병진년에 간행된 옛 족보’를 가리키는 지칭으로서, 원 족보의 명칭과 서문의 게재 위치는 나타내고 있지 않다.

18) 실제로 일제시대 간행된 족보에 수록된 것으로 보이는 구보서에는 명백히 조선왕조가 존속했던 시기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李朝’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이것은 옮겨 적으면서 ‘我朝’나 ‘國朝’ 등의 단어가 변조된 것으로 보인다.

3. 系譜觀念과 編譜體制의 변화

1) 유교적 譜牒文化의 수용과 屈折

조선전기의 족보 편찬자들은 중국의 譜牒文化를 이미 접하고 있었고, 중국에서 발간된 저명한 족보를 모범으로 하고 있었다. 중국의 족보는 宋元代 이전의 ‘古譜’와 ‘近世譜’로 구별되는데, 송대 이전의 이른바 ‘古譜’는 사족의 任官과 通婚에 불가결한 ‘혈통적 검증’을 목적으로 한 것에 비하여, 송대 사대부들의 족보는 유교적 가족윤리 실천의 표상이었고 종족 내부의 결속을 위한 목적이 더 강했다. 초기에는 小宗 범위의 종족 결속을 촉구하는 소박한 족보를 만들기 시작하다가, 南宋과 元代 이후에는 중앙 관직에 진출하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가운데, 지역적 권위를 확보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좀더 넓은 범위의 동족집단을 족보에 포함시키게 되었다.¹⁹⁾

이미 ‘宗法’이 실천되고 족보의 간행이 일반화던 중국의 사정에 대한 인식은 15세기의 족보서에서부터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476년의 『安東權氏族譜』(成化譜, 1476년)의 서문에는, 중국은 公卿大夫부터 孤單한 門族에 이르기까지 보첩이 없는 바가 없는데, 조선에는 巨家大族도 家乘이 없어 겨우 몇 대만 전하면서 고조와 증조와 조부와 아비의 명호도 기록하지 않는다고 하며, 중국에서의 족보 발간의 盛勢와 조선의 실정을 대비시켰다.²⁰⁾ 16세기 족보서에 이르면 북송대의 蘇洵(1009~1066)이 지은 『眉山蘇氏族譜』 또는 歐陽修(1007~1072)가 지은 『廬陵歐陽氏家譜』 등²¹⁾과 같은 구체적인 족보명을 거론하면서 마땅히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19) 陸貞任, 2006 『宋元代 族譜修撰과 그 社會史的 意義』 『韓國史學報』 22(고려사학회).

20) 1476년의 『安東權氏成化譜』에는 이미 중국의 宗法과 족보의 유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보인다.

‘隋唐以上 置圖譜局 有郎吏以掌撰述 婚姻選舉皆關譜牒 今中朝上自公卿大夫下至孤文單族 亦莫不有譜 上遡唐虞三代始封之祖而祖之 雖高辛神農顓頊之遠 皆一一接續而序次其譜系 豈不以圖牒相傳 得有小考歟 吾東方 自古無宗法 又無譜牒 雖巨家大族 絕無家乘 纔傳數世 有不記高曾祖考名號者 子孫寢以乖隔 或不識總功之親 視同路人 何待服盡親盡 而疎且遠哉’

21) 이들 족보는 북송대 사대부 계층의 대표적인 족보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들의 족보는 중국에서도 ‘歐蘇譜法’으로 竝稱될 만큼 후세 修譜의 범례로 작용했다. 蘇氏族譜는 『嘉祐集』에,

제시하고 있다.²²⁾

그러나 실제로 족보 기재 범위는 당시의 족보 편찬자들이 모범으로 삼은 중국 족보와는 크게 달랐다. 소씨족보는 계보관념에 있어서 부계의 혈통만을 수록하는 방식이었고, 수록 범위에 있어서도 편자를 기준으로 5世, 즉 高祖의 후손에 해당하는 有服親 이내의 죽인을 한계로 삼는 ‘小宗譜法’²³⁾을 채택하고 있었다. 실제 蘇洵의 족보는 흔히 성관 전체를 포괄하는 족보의 이념이라고 할 ‘百世不遷’의 大宗을 지향한 것이 아니라, 親盡하면 情이 다한 것이므로 譜에 신지 않는 것을 당연시하였고, 그것이 禮에 부합한다고 여겼다.²⁴⁾ 그러나 조선전기에 등장한 족보는 부계만으로 제한되지도 않았고, 유복친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 15세기의 『安東權氏成化譜』와 16세기의 『文化柳氏嘉靖譜』는 각각 안동권씨와 문화유씨의 자손을 부계에 한정하지 않고 혈연으로 이어지는 한 무한히 수록하는 방식이었다.²⁵⁾

수많은 자손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한 사람의 조상으로부터 나왔다고 보는 조상 중심의 동족 관념은, 宗族 이념을 구현하는 전형적인 논리라고 할 수 있으며, 15세기 이래 다수의 족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념은 한 인물의 가까운 친족 범위인 유복친과 부계 혈통을 공유하는 특정 성씨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었던 것이다. 예컨대 1481년의 『咸陽郡三姓族譜序』는 함양군 출신의 3개의 서로 다른 성씨가 수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서문을 지은 俞好仁(1445~1494)은 이들 3성의 자손도 1인의 조상에서 나온 것으로 인식하였다.²⁶⁾

歐陽氏族譜는 『歐陽文忠公文集』에 그 발간 전말이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陸貞任, 2006 『宋元代 族譜修撰과 그 社會史的 意義』 『韓國史學報』 22, 고려사학회).

22) 송대 족보를 전범으로 제시한 초기 사례로서, 周世鵬이 지은 『柳義興內外八姓族譜跋』(1544), 丁煥이 지은 『昌原丁氏族譜序』(1551), 洪暹이 지은 『洪氏族譜序』(1576), 李魯가 지은 『四姓綱目序』 등을 들 수 있다.

23) ‘小宗’이라는 용어는 宗法의 爵位 세습 원리에서 百世不遷하는 宗을 일컫는 ‘大宗’과 달리, 高祖를 같이하는 昆季가 지나면 끝나는 宗을 의미한다. 본고에서 ‘小宗’이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가장 가벼운 복인 總麻를 입는 범위인 同高祖(8촌) 범위의 친족범위 또는 집단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宗法의 개념과 가계계승 원리에 대해서는 池斗煥, 1998 『朝鮮前期 宗法制度 정착과정』 『조선시대 사상사의 재조명』, 역사문화, 116~120면을 참조.

24) 육정임, 앞의 논문, 245~246면.

25) 『안동권씨성화보』의 경우 수록 인원은 9,000여명에 달하였으며 이 중 부계적인 계보인 內孫인 안동권씨는 5%에도 미달하며, 95% 이상이 다양한 형태의 非父系인 계보의 외손이었다(노명호, 1992 『解題』 『安東權氏族譜(成化丙申譜)』, 안동권씨중앙종친회 영인간행본).

成倪(1439~1504)이 지은 『昌寧成氏族譜序』는 내외자손을 폭넓게 수록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면서도²⁷⁾ 1인의 조상에서 수많은 자손이 나오다가 서로 관계가 멀어지면 더이상 친족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남을 뜻하는 ‘路人’이 되기에 이르지만 그 처음을 窮究하면 一人에서 나왔다고 하여,²⁸⁾ 동성과 이성을 넘어서는 내외자손의 광범한 연대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조선의 족보 편찬자들도 자신들이 만드는 족보가 중국의 모범적 족보와 많은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유호인은 『함양군삼성족보서』에서 親疎와 降殺(강쇄)에 차등을 두는 것이 성인의 제도라고 하면서, 總麻 이하의 친족과 이성을 포함한 것이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논란하고, 內外親疎와 상관 없이 1인에게서 나온 자손이므로 차마 소원하게 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²⁹⁾ 여기서 ‘성인의 제도’라는 것은 유교적인 喪禮와 親疎遠近에 따른 친족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五服制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시마 이하의 친족과 이성을 포함한 것은 원칙에서는 벗어난 것이지만 친족 간의 유대와 친목을 적극적으로 널리 확대한 것에 대한 합리화라고 할 수 있다. 유사한 관념은 周世鵬(1495~1554)이 발문을 쓴 『柳義興內外八姓族譜』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족보는 義興縣監을 지낸 柳希潛 1인의 ‘本宗系圖’와 함께 外族 7姓의 계보가 포함된 형태의 개인 중심적인 가계기록이었다. 그런데 주세붕은 외족 7성의 족보를 함께 만든 것은 중국의 ‘老蘇’(蘇洵)도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며 칭송하였다.³⁰⁾ 주세붕은 소씨족보의 형식과 수록 범위를 충분히 인지하고 유희잠의 족보가 이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면서도 도리어 그 수록범위의 광범함을 소씨족보보다 우월한 점이라고 인식한 것이다. 1551년의

26) ‘此吾所以不論內外親疎 而各於世次派系 詳書所出 以明夫如路人者其初一人之身 而不忍疏遠之’

27) ‘得始祖中尹以下 接于摠郎爲正宗 其支庶內外諸族 以子繼父 以孫繼子 至於旁親之微 錄之無遺’

28) ‘其初一人之身而同禍者爲兄弟 同祖者爲堂從 同曾祖者爲再從 同高祖者只稱族 自此漸遠 無服而爲路人 然究其初則皆出於一也 是猶樹之一本而萬殊 萬殊而一本也’

29) ‘客有難於余曰 聖人制禮 自高祖至于曾玄 有五等之服 斬衰而齊衰 緦而大功小功而緦三月 其於厚儉成俗 意雖無窮 而勢有所不得行 故斷之以緦以下則與路人等 親疎有間 降殺有差 于以篤親親之義 于以垂法於後來 莫可尚矣 而今子之譜三姓也 併載緦以下之親 因附之以異姓 雖至更十餘世 而猶不欲與路人同 此聖人之所不能行 而子欲勝之 無乃有戾耶 曰 是亦有說 予豈及聖人之制 … (중략) … 凡爲緦以下路人者 其始雖出於一身 … (중략) … 世衰道微 人心渇薄 甚者 不孝不友於所親 而相殘於聖人之□中者 不知幾何人 此吾所以不論內外親疎’

30) ‘竊惟譜說 備於老蘇 柳君其自得者深矣 況七姓之譜 蘇之所未暇者乎’

『昌原丁氏族譜』를 제작하고 그 서문을 쓴 丁燦은 자신의 족보가 親盡한 인물을 생략하는 소씨족보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며, 소씨족보는 敦族을 중시하지만, 자신의 족보는 追遠을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합리화한 것³¹⁾도 유사한 사례이다.

이러한 여러 사례에서 나타나는 관념은 조선전기 지식층이 성리학적 혈연의식을 굴절시켜 받아들인 것에 기인한 것이었다. 중국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성리학이 수용된 14세기 이래 고려와 조선의 지식층은, 종법의 핵심적인 원리의 하나로서 조상과 자손을 동일한 ‘氣’로 연결된 존재로 인식하며 사후의 제향과 가계계승을 중시하는 ‘同氣’ 이념을 받아들리게 되었다. 그러나 내외혈연을 구별하지 않는 고유의 친족관념으로 말미암아, 父系로만 氣가 이어진다고 인식하는 宋代 성리학자의 同氣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실제 조선전기의 동기 이념은 非父系를 배제하는 것이 아닌, 非血緣의 의미를 부정하는 이념으로 작용하는 데 그쳤다.³²⁾ 조선전기의 족보가 중국 족보를 모범으로 삼으면서도 실제의 친족관념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 所自出을 추적해 보면 하나의 조상에 이르는 수많은 자손의 집합에 동성 뿐 아니라 성씨가 다른 외손도 포함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다. 특히 외손을 수록하는 명분은 딸의 자식이나 아들의 자식이나 양육한 은애나 친애의 마음에서 볼 때 동일하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에,³³⁾ 내외손을 구분하지 않고 기재하는 방식이 당시의 일상생활에서 통용되는 현실적인 親疎關係의 반영임을 알 수 있다.

31) ‘或又曰 蘇氏族譜 略遠祖 而爲一人之分爲兄弟 兄弟至於路人而作也 今特詳於祖先者 豈不戾於古歟 曰 老泉之譜 重乎敦族 今吾之譜重乎追遠’

32) 이종서, 2003 『高麗後期 이후 ‘同氣’ 理念의 전개와 血緣意識의變動』 『東方學志』 120. 朱熹(1130~1200)는 인간의 탄생과 죽음, 조상과 후손의 관계를 精氣의 聚散이라는 논리로 설명하였고, 조상과 자손의 관계를 氣의 연속으로 보아 죽으면 魂魄이 흩어지지만, 氣가 자손과 통하므로 자손이 제사를 지내면 죽은 자의 氣가 모여 감응한다고 보았다. 한편 동일한 氣가 아니거나 명분이 맞지 않는 제사는 감응할 수 없다는 것이 유교적인 제사관념인데, 주희의 제자인 陳淳(1159~1223)은 外孫은 氣類가 近似한 듯하지만 성씨가 달라서 後嗣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종서, 앞 논문, 3~9면).

33) 金堉(1580~1658)이 지은 『淸風金氏族譜序』(1637), 『漢陽趙氏族譜序』에서 ‘양육한 은혜와 친애의 마음은 父母, 内外의 구별이 없다’는 언급이 보인다. 許穆(1595~1682)은 『韓氏八祖族圖序』(1683)에서 ‘혈기의 나눔과 仁愛의 이치는 外親도 같다’고 인식하였다.

2) 同姓譜로의 변화

기존 연구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³⁴⁾ 조선전기 족보가 보여준 혈연의 계통을 구별하지 않는 계보관념은 17세기를 지나면서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父系와 非父系, 同姓과 異姓을 무제한 수록하는 ‘內外譜’ 방식에서 부계의 자손만을 선택적으로 기재하는 ‘姓譜’로 변화한 것이다. 실제로 필자가 조사한 족보 서문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뚜렷이 나타난다.

15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³⁵⁾ 廣州安氏 족보서에서도 먼 동성친이 가까운 외친보다 낫다는 식의 本宗을 중시하는 의식이 나타나지만, 실제의 계보기록에서는 이를 실천에 옮기지 않고 내외자손을 함께 수록하여 당시의 일반적인 관행을 따랐다.³⁶⁾ 동성만이 동족이라는 부계적 혈연의식은 이미 15세기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나, 어디까지나 유교적 친족이념에 따른 당위에 그쳤을 뿐 실천에 옮겨 지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성을 배제하고 동성만의 족보를 제작하는 것이 실천되는 사례는 16세기 후반의 족보서에서 나타난다.³⁷⁾ 1575년의 『全義李氏姓譜』는 ‘外姓’을 배제하고 ‘子姓’만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명칭도 ‘姓譜’라고 하였다.³⁸⁾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로서 비부계적인 계보 수록 범위가 축소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부계 친족의 수록 범위는 혈연적인 거리로나, 지역적인 분포로나 꾸준히 확대되는 경향을 뚜렷이 보인다는 점이다. 『전의이씨성보』는 편찬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掌令 李賀가 지은 미간행 족보와 관찰사 李繼福이 지은 『慶壽詩後譜』가 있었는데, 이하의 舊譜는 내외보였고, 이계복의 구보는 ‘孝靖公’(조선전기의 문신 李士寬[1382~

34) 부계 친족조직의 발달과 족보 간행 양상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崔在錫, 1983 『韓國家族制度史研究』의 제9장 1절 ‘族譜와 同族組織’에서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35) ‘思簡公’의 所作으로 되어 있는데 조선초의 문신 安省(1352~1421)의 시호인 것으로 추정된다.

36) ‘若稽先王制爲婚禮曰 不娶同姓 同姓之親 系雖至於甚疎 義則親於外族之同曾高’

37) 심승구는 이미 16세기 후반에 외손을 수록하지 않는 형태의 ‘姓譜’가 출현한 사례로 『江陵金氏乙丑譜』(1565), 『全義李氏萬曆譜』(1575), 『綾城具氏族譜』(1576)의 예를 들고 있다(심승구, 2000 『朝鮮初期 族譜의 刊行形態에 관한 研究』 『國史館論叢』 89, 33면).

38) 조선후기 족보에서는 동성만을 기재하는 ‘姓譜’의 형태가 너무도 보편적이기 때문에 굳이 ‘성보’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이 때의 ‘성보’ 명칭은 그만큼 동성 위주의 족보가 보편적인 修譜 방식에서 벗어나는 특이하고 예외적인 사례였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440]으로 추정, 孝靖은 시호) 일파만 수록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전의이씨성보』로 편찬하는 과정에서 이성까지 포함하는 내외보는 동성만으로 수록범위가 국한된 반면에, 동성의 수록 범위는 이하와 이계복의 두 구보에 수록된 인원에 ‘湖西二南’에 흩어진 자를 광범하게 추가하는 확대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변화는 17세기 이후 더욱 가속화되지만 아직까지는 과도가였기 때문에, 이전까지 동성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親親과 收族의 대상이었던 이성을 배제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관념이 병존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1575년의 『전의이씨성보』의 서문에서는 ‘감히 안에 厚하고 밖에 薄한 것이 아니라 번잡함을 피하고 統緒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³⁹⁾이라고 굳이 해명하였던 것이다. 1617년에 韓孝仲이 지은 淸州韓氏 족보 발문에서도, 외손을 생략하는 것은 編帙이 많아지지 않게 하고 考閱을 간편하게 하기 위함이지, 안에 厚하고 밖에 薄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외손이나 이성친에 대한 실질적인 親疎關係가 아직 멀어지기도 전에 부계 姓譜에 대한 이념적 당위의 실천이 선행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이덕형은 1613년의 廣州李氏 족보서에서, 어렸을 적에는 子壻만 기록하고 외손을 생략하는 부계 위주의 편제방식을 너무 소략하다고 생각하다가, 古人의 宗法을 ‘長究’하고 나서야 납득하게 되었다고 토로하였다.⁴⁰⁾ 이 사례를 통해서 부계적인 편제방식이 확산되는 초기에는 異姓과의 일상적인 친밀도가 소원해지지 않았는데도, 宗法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중법적인 기준에 따른 ‘統緒’가 잘 구현된 계보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는 이념적 당위가 강조되면서, 생경함을 무릅쓰고 새로운 편제방식을 도입했음을 알 수 있다.

선구적인 사족들이 생각한 족보의 이상적인 형태와 실질적인 친족관념 사이의 괴리 때문에, 이성을 폭넓게 수록한 내외보의 편찬은 17세기 이후에도 꾸준히 지속되었다.⁴¹⁾ 申翊聖이 지은 1631년의 全義李氏 족보 발문에서는 ‘상세함에 힘쓰

39) ‘只錄子姓 而不及於外孫 裒爲一卷 而名之曰姓譜 非敢厚於內而薄於外也 欲其枝派之不煩 而統緒之分曉也’ 동성만의 족보를 표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에는 외손으로서 녹을 먹는 자 50여인이 재물을 내어 제작할 정도로 외손의 제작 참여 비중이 컸다.

40) ‘昔余幼時 從曾大父所見廣陵世譜 印以活字 只錄子壻 不及外孫 私恨其甚略 及長究古人之宗法 乃知此譜有深意’

41) 이러한 사례는 진양하씨 족보(1606), 충주지씨 족보(1621), 청풍김씨 족보(1637), 기계유씨 족보(1645), 신창맹씨 족보(1675), 해평윤씨 족보(1676) 등 17세기에 편찬된 족보 중에서도 흔히 찾을 수 있다. 17세기 인물인 洪汝河(1620~1674)는 岳林洪氏 족보의 서문을 쓰면서 ‘外派를 기록하는 것은 東國의 습속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金萬基는 1676년의 해평윤씨

는 자는 이성을 모으고, 간략함에 힘쓰는 자는 한 개 성씨만으로 족보를 이룬다’⁴²⁾고 하여, 內外譜와 同姓譜의 다른 점을 단지 詳略의 차이로만 인식하기도 하였다. 또한 외손 범위의 축소는 16세기까지의 ‘古例’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선대 족보의 방식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조심스러운 태도도 나타났다.⁴³⁾ 그러나 점차 외손을 수록하는 일을 족보 제작 작업을 어렵게 만드는 번잡한 일로 여기는 관념이 확대되고 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동성에 대해서는 ‘번잡함’을 무릅쓰고 각 지역의 자손을 가능한 널리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는 외손을 배제한 진정한 이유는 단순한 편찬의 번거로움과 분량 과다 때문이 아니라, 계보관념과 혈연의식의 변화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17세기 이후 편보체제 변화는, 외손 범위의 축소와 아울러, 동족 유대의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는 지방 출신 同姓의 수록 노력, 독립적으로 발간된 여러 동성 족보의 통합, 그리고 신분·계층적으로 열등한 동족의 포용 노력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외손의 경우에는 전혀 수록하지 않거나, 일정한 대수를 제한하여 그 범위는 2~3대 범위에 국한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후기 족보의 일반적 관행과 같이 사위만을 수록하거나, 宅相 즉 딸의 자녀(2대)까지,⁴⁴⁾ 또는 외증손(3대) 범위까지⁴⁵⁾ 수록하는 세 가지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외손을 배제하면서도 지방 출신의 동족을 포용하고자 하는 의식의 확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1603년의 창녕성씨 족보가 있다. 이 족보는 외손의 수록은 축소

족보에서 ‘사위와 外裔를 並收하는 것은 고인의 범례와 다른 듯하지만, 別을 주장하든 厚를 주장하든 각기 마땅한 바가 있으니 무슨 해가 있겠느냐’고 반문하였다.

42) ‘吾東重世家 世家之譜 互出駢傳 務詳者 旁聚異姓 務簡者 專成一氏 若文化之柳 安東之權 爲最繁 而譜亦最詳’

43) 1617년의 咸安趙氏 족보서는 외손을 수록하는 ‘古例’를 갑자기 바꾸는 것을 ‘未安’한 일이라고 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며, 외손도 祖先의 一氣가 나뉘어진 것이지만, 이를 다 수록하면 繁蔓해진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하지만 점차 성리학적인 친족관념에 따른 부계적이고 종법적인 修譜 방식을 더 근본적인 전통으로 여기게 되었는데, 1676년의 海平尹氏 족보서에서는 외손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古人凡例’라고 당당히 주장하게 되었다. 16세기의 조선 고유의 전통보다 중국의 유교적 전통을 진정한 ‘古例’로 보게 된 것이다.

44) 그러한 예로 1650년의 新平李氏 족보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經國大典』에 따르면 외손자녀는 總麻服을 입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1676년의 晉州姜氏 족보와 1677년의 光山金氏 족보의 경우 외손자까지만 수록하는 것으로 제한하면서, 喪禮 시에 복상하는 범위라는 것이 수록 범위 규정의 명분으로 제시되었다.

45) 1659년의 鳳城琴氏 족보가 그러한 경우인데, 이 밖에도 다수의 예를 찾을 수 있다.

하면서도 그 동안 교류가 없었을 뿐 아니라 동족 여부조차도 논란이 있는 지방의 동일 성관을 한 족보에 통합 수록하려는 노력의 산물이었다. 成文濬(1559~1626)이 지은 서문의 내용에 따르면, 본관지인 昌寧에 거주하는 성씨의 경우에도 ‘路上’과 ‘路下’의 구분이 있어서 서로 같은 시조에서 나왔다고 보기 어려웠다. 성문준 본인은 노상의 창녕성씨로서 ‘中尹公’⁴⁶⁾을 시조로 하고 있었는데, 고려중엽의 시중 成履를 공통조상으로 하는 또 하나의 창녕성씨, 즉 노하의 창녕성씨가 있어서 성문준이 ‘한양에서 만난 成判書’는 후자였다는 것이다. 성문준의 從曾祖인 成世貞(1460년 출생)은 두 종류의 창녕성씨가 우연히 성관만 같을 뿐 같은 시조에서 나온 동족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路上의 성씨만으로 ‘賤隸’까지 불러모아 大宴을 열었다. 그러나 성세정과 3세대 이후의 인물인 성문준은 ‘중국에서는 동성일 뿐 본관이 달라도 源派를 가리지 않고 동족으로 대우한다’는 이유로 路下의 창녕성씨와 통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성문준은 이렇게 확대된 동성 위주의 동족 의식에 입각하여 외손의 수록은 손자대에 그쳤는데, 그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족보라는 것은 한 성족의 계통을 기록하는 것이어서 본디 타성이 뒤섞여서는 불가하다. 우리나라에서 족보를 짓는 자는 외손과 지파를 많이 기록하여 여러 세대가 지나도 끊이지 않아서, 한 족보의 가운데 이성이 많고 도리어 동성이 적으니 이는 옛 뜻이 아니다. 나의 先人(작자의 부친인 牛溪 成渾: 인용자 註)께서는 일찌기 남의 족보에 외파를 함께 적는 것을 보고서 나에게 “이것은 東方氏族志이지 족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비록 그러하나 우리나라의 풍속이 본디 外姓을 중시하여 內外從간에 親親의 정이 심히 현격하지 않다. 만약 족보를 짓는다면 단지 외손 한 세대를 기록하는 것으로 그쳐도 오히려 가하다. 이제 외파의 기록은 손자에 그쳐 先志를 따르고자 한다. 그러나 이성을 섞어서 쓰는 것은 이미 譜法이 아닐 뿐 아니라 篇帙이 많아지고 檢閱에 방해가 될까 두려우니, 外譜에 別錄하여 備考하고자 한다.⁴⁷⁾

46) 현대의 譜學書에 의하면, 中尹公은 창녕에 누대 세거한 호족으로서 戶長中尹을 지낸 成仁輔라고 한다(『韓國人の 族譜』, 1977, 日新閣, 605면). 참고로 현대 족보에는 노하의 시조 成履가 노상의 시조 成仁輔의 玄孫으로 기록되어 두 창녕성씨의 계보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47) ‘族譜云者 譜一姓之族也 本不可以他姓雜之 我國之爲譜者 多錄外孫支派 累世不絕 遂使一譜之中異姓多而同姓反少 非古義也 我先人嘗觀人族譜竝錄外派 謂文濬曰 此乃東邦氏族志 非族譜也 雖然 我國之俗 素重外姓 中表親親之情 不甚懸絕 若爲譜者只錄外孫一世而止 則猶可矣 今茲外派之錄止於孫者 蓋欲追遵先志也 然雜書異姓 既非譜法 又恐篇帙猶繁 妨於檢閱 乃別

분명히 족보는 姓族을 기록하기 위한 기록이며, 한 권의 족보에는 한 개의 성씨만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관념이 뚜렷이 나타나며, 그것을 ‘譜法’으로 삼아 후세 족보 편찬의 원칙으로 전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성문준이 표방한 ‘一譜一姓’의 관념은 동시대의 다수의 족보에서 ‘동성의 의리는 百世가 지나도 다하지 않는다’⁴⁸⁾는 말이 표현하듯이 동성이면 곧 동족이라는 관념의 발로로서, ‘宗緒를 중시하고 昭穆의 列이 분명하도록 한다’⁴⁹⁾는 말처럼 부계적인 가계 계승 원리와 친족질서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계보관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시조가 같다는 이유로 ‘賤隸’라고 지칭된 열등한 신분까지도 동족유대의 범주에 넣은 것도 주목되는 현상이다.

3) 소규모 족보의 통합과 別譜의 출현

상기한 同姓=同族이라는 의식에 따라 서로 다른 본관으로 分籍한 동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⁵⁰⁾ 서로 계보상 잘 연결되지 않는 同姓同本の 계파를 가능한 망라하여 족보에 수록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1605년의 延安李氏 족보서를 지은 李光庭은 이성자손을 다 실으면 번잡하기 때문에 후일로 미룬다고 하면서도, 서로 계보상 연결이 되지 않는 연안이씨의 3계파, 즉 이광정 본인의 선조인 李貴齡·貴山の 계파, 李廷龜의 선조인 李石亨의 계파, 延陵府院君 李好閔의 선조인 李淑琦·淑臧의 계파가 있음을 지적하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실제로 이들 족보의 계파를 통합하여 기록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전에는 동성이든 이성이든 혈연이 연결되었는지 여부에만 관심을 가지던 계보관념에서 혈연관계가 불분명해도 同姓=同族으로 보는 계보관념으로 이행하고 있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관념에 따라 실제로 지역적으로 격리되어 있고 심지어 본관도 달리 사

錄爲外譜以備考焉’

48) 河受一, 『河氏族譜序』(1605), ‘孟子曰 君子之澤 五世而斬 小人之澤 五世而斬 情有隆殺 禮有節文 故六世則親屬竭矣 然其同姓之義 雖百世不能竭矣’

49) 安瑬, 『萬曆舊譜序』(1575), 『全義李氏族譜』(奎53), ‘只錄子姓 重宗緒也 譜一啓而昭穆之列 井井昭晰 如指諸掌 咸知其所自出’

50) 1604년의 德山黃氏 족보서에서는 황씨가 昌原, 長水 등의 여러 본관으로 분적한 경위를 서술하면서, 분적 후 각자의 시조를 별도로 두게 되어 동일한 조상의 자손임을 알지 못하고, 서로 통혼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용하고 있던 동족의 소규모 족보나 가계기록을 통합하여 보다 종합적인 족보를 제작하는 사례는 17세기 이후 다수 발견된다. 1605년에 成汝信이 지은 『喜得族譜序』에 따르면, 본인이 소장하던 ‘昌山世譜’는 영남에 거주하는 계파가 상세하고, 서울에 사는 進士 成達善이 가지고 있던 족보는 서울 거주자가 상세하여, 같은 선조에서 갈라졌음을 확인한 후 통합을 모색하였다. 서로 다른 본관의 족보가 통합되는 경우도 있었다. 1617년의 『完山崔氏別譜』의 발문에 따르면, 서로 조상이 같은지 알지 못했던 화순최씨와 전주최씨가 동족임을 알게 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본관이 동족으로 통합하고자 노력하는 현상은, 조선시대 문벌의식이 고조됨에 따라 명조와 현조를 받들지 못한 僻貫이 저명한 성관으로 흡수되는 과정⁵¹⁾으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다. 姜栢年(1603~1681)이 서문을 쓴 『奎氏族譜』는 원래 歡城에 전씨가 많았는데, 그 枝葉이 영호남에 산처하게 되어 서로 알지 못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편찬자 奎克亨은 여러 친족과 의논하여 湖中の 諸族이 소장한 家譜를 모아서 편집했다고 한다. 1681년의 영양남씨 족보를 제작할 때에는 남씨에는 宜寧과 固城의 두 宗이 있었고 보첩이 없어 소출한 계보를 고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여러 종인의 家乘世牒을 서로 참고하여 세계의 내력을 고증하였다.⁵²⁾ 李惟樟(1625~1701)이 서문을 쓴 禮安李氏 족보도 이전까지 계보가 연결되는지 확인되지 않았던 全義의 족보와 禮安의 족보를 통합한 사례이다.

여러 방면의 계대 고증 시도에도 불구하고 끝내 계보상 연결을 확인하지 못한 동성에 대해서는 ‘別譜’라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별보의 작성은 동성이면 곧 百世之親이라는 관념에 따라 계보관계나 同祖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도 동족으로 인식하는 관념의 소치로서, 동성친에 대한 광범한 계보 수록 노력을 반영하는 현상이다. 별보로 실리는 가계는 대체로 지방에 거주하는 상대적으로 한미한 인물들인 경우가 많다. 17세기 초반의 사례로 같은 시조에서 갈라져 나왔는지 의심스러운 계파를 ‘海西望族’이라는 이유로 동족으로 인정하여 족보의 말미에 별보로 실어준 首陽吳氏 족보(吳翻[생몰년 1592~1634] 편찬)의 조치를 들 수 있다. 그 밖에

51) 李樹健, 2003 『한국의 성씨와 족보』(서울대학교출판부)의 VI장 6절 ‘조선시대 성관의식과 성관의 변화’에서 이러한 현상을 자세히 서술하였다.

52) ‘嘗慨然曰 宜寧固城之宗 猶有疑於分流之地 殿錄寺令之房 尚未攷其所出之系 以成千古之恨 此無他 譜牒不成故也 於是蒐輯諸宗人家乘世牒 參互攷證 以明世系之來歷 又譜錄遠邇子姓 靡有遺漏 內外之間 亦各有差別 以成英陽南氏族譜’

姜栢年이 서문을 쓴 『全氏族譜』와 1682년에 간행된 泰仁許氏 족보도 ‘세계가 선 조에 달하지 못하는 자’는 譜末에 수록하는 별보 조치를 한 사례이다.

별보에 실린 인물의 출신과 사회적 지위, 그리고 그들을 수록하게 된 사정에 대해서는 다음 사례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宋時烈(1607~1689)이 쓴 『宋氏別譜序』에는 北關 지방의 송씨 자손을 별보의 형태로 첨부하게 된 경위를 기록하였다. 故參議 宋國澤(1597~1659)이 인조대에 복관에 여러번 謫居한 까닭으로 송씨의 별보로서 북쪽에 있는 자가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1675년에 그 무리인 宋仲賢과 宋守文 등이 송시열에게 와서 문의하여 계보를 검토하게 되었는데, 복관에는 兩派가 존재하며 개중에는 編戶되거나 官隸가 된 부류도 있었다. 지방에 거주하는 상대적으로 미천한 계파가 저명한 인물의 가계에 편입하고자 노력하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서 1685년의 『晉州姜氏世譜』는 영남 중인의 家譜는 오류가 많아 수록하기도 곤란하고 완전히 버리지도 못하여 뒤에 별록하여 ‘傳疑’하였다고 한다. 1693년의 泗川睦氏 족보는 계파를 잃은 襄津의 족친을 권말에 별록하였다. 이처럼 별보 처리의 증가는 족보 수록 인물의 지역 범위 확대와 맥을 같이하는 현상이었던 것이다.

족보가 포괄하는 범위의 확대는 지역적 범위뿐만 아니라 포괄하는 신분적인 層位도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앞서 1603년의 창녕성씨 족보에서 賤隸의 신분에 놓인 사람도 동성간의 연회에 초청한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같은 성관을 매개로 구현되는 동족의식은 때때로 신분 또는 계층의 尊卑를 뛰어넘는 듯한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족보제작자가 동성을 가능한 한 폭넓게 수록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동성동본이면서도 鄉吏이거나 常賤民의 신분인 동족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었고,⁵³⁾ 이런 경우에도 이들을 배제하기보다는 대체로 포용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15세기 족보로 추정되는 廣州安氏 족보서와 같이 ‘公私賤隸 및 정해진 배우자 외의 출생자(庶孽)’와 같이 신분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구별은 하겠지만 버리지 않겠다는 원칙을 명시한 예⁵⁴⁾가 있고, 『咸陽郡三姓族譜序』(1481)에는 ‘編戶之氓’까지도 親親의 대상이라고 보았다. 姜栢年(1603~1681)이

53) 김종직의 『彝遵錄』(1480)에는 선산김씨의 자손 중에는 ‘民伍’에 빠진 자가 많고, 과거 합격자도 數人에 불과하다고 하여, 부계 종족 중에는 사족의 지체를 유지하지 못한 사례가 많음을 지적하였다.

54) ‘庶孽詳之世系者 亦必記之 而子之□□於嫡女之後 至於公私賤隸 無定耦之所產 則不問男女直書名于卷之末 不必斥之以妾子妾女 而尊嫡抑庶之義 隱然皆在其中 賤不以賤棄之 厚之道也’

서문을 쓴 전씨족보에서도 ‘吏胥의 賤한 자’도 수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물론 조선후기 족보에서 서열의 경우 ‘庶’자를 대대로 명시하여 ‘嫡派’와 ‘庶派’의 차별이 엄존하고 있었던 사실에서 잘 나타나듯이,⁵⁵⁾ 동족 내에서의 차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지만, ‘부계 혈통에 의한 동족의식’이 ‘신분적 동류의식’을 넘어설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1604년의 德山黃氏 족보서에서는 同宗을 중시하기 위해 서열과 氓(常民) 또는 吏(이서층)가 된 자들도 기록하겠다고 천명하였는데, 이 사례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外親과 姻親까지 무제한 수록하는 것은 ‘士族’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고, 서열과 상민, 吏族까지 수록하는 것은 ‘同宗’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라고 하여, 양측적인 혈연의식과 부계적인 혈연의식의 기능을 분리하여 이해한 점이다.⁵⁶⁾ 즉 외손의 외손까지 무제한 수록하는 것은 동일한 사족층의 동류의식의 소산이고, 신분을 초월한 ‘同宗’ 의식은 사대부 계층 일반의 동류의식과는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실제로 『안동권씨성화보』와 같이 광범위한 내외손을 등재한 조선전기 綜合譜에는 혈연적으로 후예라 하더라도 미천한 계파나 現職鄉吏系는 등재되지 않았다.⁵⁷⁾ 이를 통해 부계 족보로의 변화가 사족층의 인간관계망을 ‘동일한 관직과 사회기반을 공유하는 동류신분층’ 중심에서 ‘지역적으로 격리되어 있고 내부적인 차등은 있지만 동족의식을 공유하는 姓族 집단’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7세기 이후 족보서문을 통해 나타나는 편보체제와 계보의식이 변화하면서 족보에 수록되는 인물의 지역적, 신분적 층위와 저변이 확대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핵심에는 분명히 유교적 禮敎가 확산되면서 종법적인 가족질서가 일관되게 강화되는 추세가 존재했다. 하지만 부

55) 사실 족보 기재에서의 적서 차별은 중국 족보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한국 족보가 갖는 특색이었다. 이는 신분 판정에 있어서 부계 뿐 아니라 母邊의 혈통을 중요시하는 한국의 전통적 친족관념의 소치라고 생각된다. 적서 신분 표기와 관련된 한중 족보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다음 논저를 참조할 수 있다. 宋俊浩, 1987 『族譜를 통해서 본 韓·中 兩國의 傳統社會』, 『斗溪李丙巖博士九旬紀念韓國史學論叢』(宋俊浩, 1987 『朝鮮社會史研究』[일조각]에 재수록); 李鍾日, 2002 『18·19세기 韓中 族譜상의 嫡庶表示와 그 身分史的 意義』 『東國史學』 37, 동국사학회.

56) ‘外派之外族 舅親之舅族 一書屢書而不已 明士族也 爲庶爲擘 爲氓爲吏者 亦書之 重同宗也’

57) 이수건, 앞의 글, 21면. 이 논문의 필자는 미천한 계파가 수록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전기 족보를 일종의 ‘士族 또는 仕宦譜(簪纓譜)’라고 규정하였다.

계 의식이 강화되는 이면에는, 족보의 주된 편찬계층이었던 양반층의 인간관계망 변동이라는 좀 더 광범위한 사회현상이 존재했다. 족보 수록 인원의 지역적 범위가 확대되고, 신분적으로도 동질적인 중앙관인층의 범위를 벗어나는 현상은, 17세기 이후 사족에게 있어서 지역적 근거지의 의미가 강화되고 스스로 유교적 지식과 교양을 갖춘 ‘士類’를 자칭할 수 있는 계층의 범위가 확산되면서, 그들의 내부 분화와 아울러 집단적 결속이 강화되는 변화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변화를 매개하고 촉진하는 이념적인 근거가 종법 이념의 강화와 부계 중심의 일원적인 친족조직 원리의 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17세기 이후 족보의 확산과 편보체제 변화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는 현상이었던 것이다.

4. 맺음말

족보는 양반사족층의 유교적 도덕과 의례를 遵行하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로서, 조선시대의 유교적 교화의 사회적 확산이라는 역사적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지배층의 다른 시기와 비교되는 시대적 성격을 대표하는 기록물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또한 족보는 사족사회 인간관계망의 구조를 반영함과 동시에 그 변화를 촉진시키기도 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한국사에서 족보라는 가계기록이 본격적으로 출현하여 지배계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어가는 15~17세기의 족보서발문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족보의 간행 추이와 성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선의 족보 편찬자들은 이미 15세기부터 중국의 譜牒文化를 접하고 중국에서 발간된 저명한 족보를 모범으로 삼고자 하였다. 16세기까지는 중국의 족보와 달리 父系와 非父系를 가리지 않고 무제한 기록하는 內外譜가 일반적이었으나, 17세기 이후 종법 실천의 의무감이 강화되고 同姓=同族이라는 관념이 확대되면서 異姓親이 배제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짝하여 동성친의 수록범위는 지역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널리 확대되었고, 이전까지 동족으로 여기지 않았던, 계보 연결이 확인되지 않거나 본관이 다른 동성까지도 ‘別譜’ 등의 형식으로 하나의 족보로 포괄하고자 노력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와 같은 족보의 편찬 방식을 통해 사족사회의 인간관계망이 단순한 중앙관인들의 ‘同類意識’ 수준을 넘어 ‘同姓’을 매개로 하여 지역적인 유대가 확대되고 신분적으로도 다양한 층위를 넘나들게 되었다

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는 족보의 제작 목적, 편보체제, 계보관념에 대한 검토에 그쳤을 뿐, 아직 족보 제작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족보제작에 관련된 개별 인물에 대한 분석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족보의 기록 방식을 통해 포착되는 사족 사회의 인간관계망 변화에 대한 필자의 주장은 많은 부분에서 가설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족보는 주로 혈연의식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이기 때문에 사족사회 변화의 모든 측면을 설명해 줄 수는 없다. 조선시대 學派와 朋黨의 전개, 사족사회의 公論 형성과 사족의 정치·경제적 기반 같은 여러 현상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자료와 그로부터 얻어진 사실과 연계해야만 전체적인 사회상이 파악될 것이라고 믿는다. 앞으로 본고에서 검토한 족보가 제작되는 과정, 그리고 족보를 제작한 개별 인물과 가문의 지역적 근거지와 연계망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아울러, 學派 및 政派 형성과의 연관성도 충분히 고찰하여 본고의 논지를 보강하도록 하겠다.

【附表 1】 15~17세기 族譜序 목록

성 관명	연대	저자	자료의 출처			비고
			舊譜序集 (鄭炳沆, 『韓國族譜舊譜序集』 에서 추출)	文集 收錄 (民族文化推進會 編, 『韓國文集叢刊』 에서 추출)	奎章閣 所藏 (奎章閣 四部分類 『一般族譜』에서 추출)	
海州吳氏	1401(태종 1)	吳先敬	族圖舊序(2면)			
水原白氏	1405(태종 5)	黃喜	舊序(3면)			
廣州安氏	安省 생존연대 (1352~1421)	安省	舊序(5면)			
文化柳氏	1423(세종 5)	柳穎	永樂譜序(10면)			
南陽洪氏	1454(단종 2)	洪逸童	舊譜序(14면)		南陽洪氏世譜 (奎4197)	
鐵城(固城)李氏	1476(성종 7)			鐵城聯芳集序 (『靑坡集』 권2)	鐵城聯芳集 (奎7354)	

성 관 명	연 대	저 자	자료의 출처			비 고
			舊譜序集 (鄭炳沆 『韓國族譜舊譜序集』 에서 추출)	文集 收錄 (民族文化推進會 編 『韓國文集叢刊』 에서 추출)	奎章閣 所藏 (奎章閣 四部分類 『一般族譜』에서 추출)	
安東權氏	1476(성종 7)	徐居正	安東權氏家譜 序(18면)		安東權氏族譜 (古929.1 Se61a)	통칭 『安東權氏 成化譜』
安東權氏	1476(성종 7)	崔鎭			安東權氏族譜 (古929.1 Se61a)	跋文
全義李氏	1476(성종 7)	李麟	全義李氏族譜 舊序(22면)		全義李氏族譜 (奎53)	
驪興閔氏	1478(성종 9)	閔奎	驪興閔氏族譜 舊序(24면)			
善山金氏	1480(성종 11)	金宗直		彙尊錄 (『佔畢齋集』)		
	1481(성종 12)	俞好仁		咸陽郡三姓族 譜序(『潘谿集』 권7)		
南原梁氏	1482(성종 13)	李淑城		南原梁氏族譜序 (『訥齋集』 권6)		
陽城李氏	1486(성종 17)	李承召	舊序(28면)			
昌寧成氏	1493(성종 24)	成倪		昌寧成氏族譜 序(『虛白堂文 集』 권6)	昌寧成氏族譜 (奎9798), 昌寧成氏思肅公 派譜(奎3151, 3992, 484)	
昌寧成氏	1493(성종 24)	成重性			昌寧成氏族譜 (奎9798)	跋文
坡平尹氏	1515(중종 10)	蘇世讓	己亥譜序(32면)	書尹氏族譜後 (『陽谷先生集』 권14)		

성 관명	연대	저자	자료의 출처			비고
			舊譜序集 (鄭炳沆 『韓國族譜舊譜序集』 에서 추출)	文集 收錄 (民族文化推進會 編 『韓國文集叢刊』 에서 추출)	奎章閣 所藏 (奎章閣 四部分類 『一般族譜』에서 추출)	
和順崔氏	1517(중종 12)	崔世演	和順崔氏世譜 舊序(37면)			
和順崔氏	1529(중종 24)	李恒敬	丁丑舊譜序 (34면)			
陝川李氏	1529(중종 24)	李福老			陝川李氏世譜 (奎8601)	
豐川盧氏	1536(중종 31)	盧禎	豐川盧氏族譜 序(39면)	書盧氏族譜後 (『玉溪先生文 集』 권5)		
鎭川宋氏	1541(중종 36)	宋贊	辛丑譜序(41면)			
泰仁許氏	1543(중종 38)	金安國	慕齋金先生安國 所撰序(43면)			
陽川許氏	김안국 생존연대 (1478~1543)	金安國		陽川許氏先世 系譜序(『慕齋 先生集』 권11)		
文城柳氏	1544(중종 39)	周世鵬		柳義興內外八 姓族譜跋 (『武陵雜稿』 卷8 原集)		
順興安氏	1546(명종 1)	安璋	丙午譜序跋 (46면)		順興安氏族譜 (奎12636)	
順興安氏	1546(명종 1)	安玆			順興安氏族譜 (奎12636)	跋文
昌原丁氏	1551(명종 6)	丁燾	昌原丁氏舊譜 序(51면)	昌原丁氏族譜 序(『游軒先生 集』 권3)		

성 관명	연대	저자	자료의 출처			비고
			舊譜序集 (鄭炳沆 『韓國族譜舊譜序集』 에서 추출)	文集 收錄 (民族文化推進會 編 『韓國文集叢刊』 에서 추출)	奎章閣 所藏 (奎章閣 四部分類 『一般族譜』에서 추출)	
沃川全氏	1554(명종 9)	全彭齡	沃川全氏世譜 舊序(56면)			
文化柳氏	1562(명종 17)	柳希潛	嘉靖譜序 (11면)			통칭 『文化柳氏 嘉靖譜』
興城張氏	1566(명종 21)	張倪	興城張氏大同 譜舊序(57면)		興城張氏世譜 (古929.1-J257h)	
全義李氏	1575(선조 8)	李海壽		全義李氏姓譜序 (『藥圃集』 권6)	全義李氏族譜 (奎53)	
全義李氏	1575(선조 8)	安璫			全義李氏族譜 (奎53)	跋文
南陽洪氏	1576(선조 9)	洪暹		洪氏族譜序 (『忍齋先生文集』 권4)		
安東金氏	1580(선조 13)	金億齡	庚辰譜序 (61면)			
東萊鄭氏	1585(선조 18)	鄭惟吉			東萊鄭氏派譜 (奎860)	
茂長金氏	1592(선조 25)	金緯	壬辰舊家乘序 (62면)			
4姓(鐵城 李氏, 昌 寧成氏, 南平文氏, 安岳李氏)	1597(선조 30)	李魯		四姓綱目序 (『松巖先生文集』 권3)		
恩津宋氏	1599(선조 32)	宋柑壽	恩津宋氏族譜 舊序(66면)			

성 관명	연대	저자	자료의 출처			비고
			舊譜序集 (鄭炳沆, 『韓國族譜舊譜序集』 에서 추출)	文集 收錄 (民族文化推進會 編, 『韓國文集叢刊』 에서 추출)	奎章閣 所藏 (奎章閣 四部分類 『一般族譜』에서 추출)	
光山卓氏	1600(선조 33)	鄭崑壽	舊譜序(68면)			
眞城李氏	1600(선조 33)	金玊		眞城李氏族譜序 (『栢巖先生文集』 권6)		
昌寧成氏	1603(선조 36)	成文濬		昌寧成氏宗譜 後敍(『滄浪先生文集』 권4)		
德山黃氏	1604(선조 37)		德山黃氏族譜 舊序(73면)			
南陽洪氏	1604(선조 37)	柳成龍		南陽洪氏世譜序 (『西厓先生文集』 권17)		
利川徐氏	유성룡 생존연대 (1542~1607)	柳成龍		書利川徐氏族 譜後(『西厓先生文集』 권18)		
延安李氏	1605(선조 38)	李光庭	延安李氏世譜 舊序(76면)			
昌寧成氏	1605(선조 38)	成汝信		喜得族譜書 (『浮查先生文集』 권3)		
晋州河氏	1605(선조 38)	河受一		河氏族譜序 (『松亭先生文集』 권4)		
礪山宋氏	1606(선조 39)	宋言愼	丙午舊譜序(80면)			
昌寧曹氏	1606(선조 39)		昌寧曹氏族譜序 (83면)			
晋陽河氏	1606(선조 39)	河渾	舊誌(85면)			

성 관명	연대	저자	자료의 출처			비고
			舊譜序集 (鄭炳沆 『韓國族譜舊譜序集』 에서 추출)	文集 收錄 (民族文化推進會 編 『韓國文集叢刊』 에서 추출)	奎章閣 所藏 (奎章閣 四部分類 『一般族譜』에서 추출)	
慶州裴氏	1606(선조 39)	裴龍吉		曲江家世譜序 (『琴易堂先生文集』 권4)		
廣州李氏	1613 (광해군 5)	李德馨		族譜序 (『漢陰先生文稿』 권12)	廣州李氏派譜 (古929.1-Y5g)	
昌寧成氏	1615(광해군 7)	成文濬	丙辰舊序(89면)	昌寧成氏族譜跋 (『滄浪先生文集』 권4)	昌寧成氏族譜 (奎9798), 昌寧成氏思肅公 派譜(奎3151, 3992, 484)	간행년도는 병진년 (1616)이지 만, 서문을 쓴 연도는 전년도인 1615년임.
昌寧成氏	1616(광해군 8)	成晉善			昌寧成氏族譜 (奎9798)	
咸安趙氏	1617(광해군 9)		舊譜序跋(91면)			
完山崔氏	1617(광해군 9)	崔晈		完山崔氏別譜跋 (『認齋先生文集』 권11)		
淸州韓氏	1617(광해군 9)	韓赫			淸州韓氏族譜 (古4650-75)	跋文
淸州韓氏	1617(광해군 9)	韓孝仲			淸州韓氏族譜 (古4650-75), 淸州韓氏世譜 (古4650-74)	跋文
陽城李氏	강항 생존연대 (1567~1618)	姜沆		陽城李氏族譜序 (『睡隱集』 권3)		

성 관명	연대	저자	자료의 출처			비고
			舊譜序集 (鄭炳沆 『韓國族譜舊譜序集』 에서 추출)	文集 收錄 (民族文化推進會 編 『韓國文集叢刊』 에서 추출)	奎章閣 所藏 (奎章閣 四部分類 『一般族譜』에서 추출)	
忠州池氏	1621 (광해군 13)	池德海	忠州池氏舊譜 序(95면)			
驪興閔氏	1622 (광해군 14)	閔仁伯		族譜跋 (『苔泉集』 권1)		
金寧金氏	1624(인조 2)	金廷弼	舊譜序(97면)			
李西原聯 派譜序	신흠 생존연대 (1566~1627)	申欽		『象村稿』 권21		
全義李氏	1630(인조 8)	李命俊			全義李氏族譜 (奎53)	
全義李氏	1631(인조 9)	申翊聖			全義李氏族譜 (奎53)	跋文
咸豐李氏	1633(인조 11)	李潁	舊草譜序(117면)			
全義李氏	1634(인조 12)	李厚基			全義李氏族譜 (奎53)	‘崇禎甲戌 刊譜後短 跋’이라는 명칭이 붙은 跋文
平山申氏	1636(인조 14)	申敏一		平山申氏姓譜後跋 (『化堂先生集』 권3)		
首陽吳氏	吳翻 생존연대 (1592~1634)	吳翻		首陽吳氏族譜跋 (『천파집』 권4)		
坡平尹氏	李埈 생존연대 (1560~1635)	李埈(權 使相을 대신해서 지음)		坡平尹氏族譜跋 (『蒼石先生文 集』 권14)		

성 관 명	연 대	저 자	자료의 출처			비 고
			舊譜序集 (鄭炳沆, 『韓國族譜舊譜序集』 에서 추출)	文集 收錄 (民族文化推進會 編, 『韓國文集叢刊』 에서 추출)	奎章閣 所藏 (奎章閣 四部分類 ‘一般族譜’에서 추출)	
淸風金氏	1637(인조 15)	金堉	淸風金氏舊譜 序(124면)	淸風金氏族譜序 (『潛谷先生遺稿』 권9)	淸風金氏世譜 (奎171, 奎1825, 奎1819, 奎3774)	
淸風金氏	1638(인조 16)	金寅			淸風金氏世譜 (奎171, 奎1825, 奎1819, 奎3774)	‘舊譜後題’ 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 跋文
德水張氏	張維 생존연대 (1587~1638)	張維		德水張氏家乘序 (『谿谷先生集』 권5)		
淳昌趙氏	1642(인조 20)		舊譜序(130면)			
淸州韓氏	1643(인조 21)	韓弘述	癸卯譜序 (132면)			『關北淸 州韓氏咸 興杻田派 譜』에 수록
韓山李氏	1643(인조 21)	李植	舊譜序(136면)			
坡平尹氏 (野城尹氏)	1644(인조 22)	尹時衡			坡平尹氏舊譜 一名 野城尹氏世譜, 野城君派族譜 (古929.1 Y97j)	
平山申氏	신익성 생존연대 (1588~1644)	申翊聖		平山申氏姓譜序 (『樂全堂集』 권6)		
杞溪俞氏	1645(인조 23)	俞榮		杞溪俞氏族譜序 (『市南先生文 集』 권18)	杞溪俞氏族譜 (奎1813, 奎2362)	

성 관명	연대	저자	자료의 출처			비고
			舊譜序集 (鄭炳沆 『韓國族譜舊譜序集』 에서 추출)	文集 收錄 (民族文化推進會 編 『韓國文集叢刊』 에서 추출)	奎章閣 所藏 (奎章閣 四部分類 『一般族譜』에서 추출)	
豊基秦氏	1646(인조 24)	秦尙弘	舊草譜後敍 (138면)			
永川李氏	1646(인조 24)	李民奭 (1573~ 1649)		族譜序 (『紫巖集』 권3)		
慶州金氏	1648(인조 26)	金鎬	戊子舊譜序 (142면)			
順興安氏	1649(인조 27)	安應昌			順興安氏族譜 (奎12636)	
順興安氏	1649(인조 27)	安道徵			順興安氏族譜 (奎12636)	
新平李氏	1650(효종 1)	李昀	族譜舊序 (146면)			
高興柳氏	1653(효종 4)	姜時徹	高興柳氏世譜 癸巳舊序 (177면)			
東萊鄭氏	1655(효종 6)	李敏求			東萊鄭氏派譜 (奎1655)	
東萊鄭氏	1655(효종 6)	鄭良弼			東萊鄭氏派譜 (奎1655)	跋文
原州崔氏	1656(효종 7)	崔齊岳	舊譜序(156면)			
漢陽趙氏	金堉 생존연대 (1580~1658)	金堉		漢陽趙氏族譜序 (『潛谷先生遺稿』 권9)		
鳳城琴氏	1659(효종 10)	琴尙絃	舊序(159면)			
沔陽卜氏	1662(현종 3)	宋時烈	沔陽卜氏舊譜 序(162면)			

성 관 명	연 대	저 자	자료의 출처			비 고
			舊譜序集 (鄭炳沆 『韓國族譜舊譜序集』 에서 추출)	文集 收錄 (民族文化推進會 編 『韓國文集叢刊』 에서 추출)	奎章閣 所藏 (奎章閣 四部分類 『一般族譜』에서 추출)	
咸安趙氏	1665(현 중 6)	趙德樞	咸安趙氏舊派 譜序(165면)			
恩津宋氏	1666(현 중 7)	宋時烈		恩津宋氏族譜序 (『宋子大全』 권137)		
晋州姜氏	1667(현 중 8)	姜瑜	舊譜序(166면)			
高興柳氏	1668(현 중 9)	宋時烈		高興柳氏族譜序 (『宋子大全』 권137)		
綾城具氏	1668(현 중 9)	宋時烈		綾城具氏族譜序 (『宋子大全』 권116)		
平陽朴氏	1670(현 중 11)	宋時烈		平陽朴氏族譜序 (『宋子大全』 권138)		
陽川許氏	1671(현 중 12)	許穆		陽川許氏族譜 (『記言』 권12)		
尙州朴氏	1672(현 중 13)	朴纘世	舊譜序(171면)			
淸州李氏	현 중 대	李天基	淸州李氏舊譜 序(173면)			
缶林洪氏	홍여하 생존연대 (1620~1674)	洪汝河		缶林洪氏族譜序 (『木齋先生文 集』 권5)		
新昌孟氏	1675(숙 중 1)	孟冑瑞	舊譜序(180면)			新昌孟氏 護軍公派 譜

성 관명	연대	저자	자료의 출처			비고
			舊譜序集 (鄭炳沆, 『韓國族譜舊譜序集』 에서 추출)	文集 收錄 (民族文化推進會 編, 『韓國文集叢刊』 에서 추출)	奎章閣 所藏 (奎章閣 四部分類 『一般族譜』에서 추출)	
海平尹氏	1676(숙종 2)	南九萬	丙辰譜序 (181면)		海平尹氏世譜 (奎170, 奎1827, 奎1848)	
海平尹氏	1676(숙종 2)	金萬基		海平尹氏族譜 (『瑞石先生集』 권5)	海平尹氏世譜 (奎170, 奎1827, 奎1848)	
海平尹氏	1676(숙종 2)	尹堉			海平尹氏世譜 (奎170, 奎1827, 奎1848)	
光山金氏	1677(숙종 3)	金萬基	舊譜序(185면)	光山金氏族譜序 (『瑞石先生集』 권5)		
順天朴氏	1677(숙종 3)	宋時烈	舊譜序(188면)			
密城朴氏	1677(숙종 3)	朴信圭	密城朴氏族譜 序(191면)			
咸陽朴氏	1678(숙종 4)	朴恬	戊午舊譜序 (194면)			
咸陽朴氏	1678(숙종 4)	宋時烈		咸陽朴氏族譜序 (『宋子大全』 권138)		
豐壤趙氏	1678(숙종 4)	崔錫鼎			豐壤趙氏世譜 (奎168, 奎167, 奎107, 奎1830, 奎1831)	
潘南朴氏	1679(숙종 5)	朴泰徵			潘南朴氏世譜 (奎1929, 2284)	跋文
平海孫氏	1681(숙종 7)	孫聖海	舊譜序(207면)			

성 관 명	연 대	저 자	자료의 출처			비 고
			舊譜序集 (鄭炳沆, 『韓國族譜舊譜序集』 에서 추출)	文集 收錄 (民族文化推進會 編, 『韓國文集叢刊』 에서 추출)	奎章閣 所藏 (奎章閣 四部分類 ‘一般族譜’에서 추출)	
晉州蘇氏	1681(숙종 7)	宋時烈	晉州蘇氏舊族譜序(211면)	晉州蘇氏族譜序 (『宋子大全』 권139)		
英陽南氏	1681년	李惟樟		英陽南氏族譜跋 (『孤山先生文集』 권5)		
全氏	강백년 생존연대 (1603~1681)	姜栢年		全氏族譜序 (『雪峯遺稿』 권23)		
泰仁許氏	1682(숙종 8)	許國亨	壬戌舊譜序 (212면)			
坡平尹氏	1682(숙종 8)	尹拯		重刊坡平姓譜 後序(『明齋先生遺稿』 권32)		
羅州羅氏	1683(숙종 9)	羅晩成	舊序(220면)			
韓氏	1683(숙종 9)	許穆		韓氏八祖族圖序 (『記言』 권12)		
潘南朴氏	1683(숙종 9)	朴世堂		潘南朴氏世譜序 (『西溪先生集』 권7)	潘南朴氏世譜 (奎1929)	
潘南朴氏	1683(숙종 9)	朴泰輔			潘南朴氏世譜 (奎1929, 2284)	跋文
信川金氏	1685(숙종 11)	崔錫鼎	舊譜序(222면)			
宣城金氏	1685(숙종 11)	金兌一	宣城金氏族譜 舊序(225면)			
晉州姜氏	1685(숙종 11)		南漢譜(227면)			

성 관명	연대	저자	자료의 출처			비고
			舊譜序集 (鄭炳沆 『韓國族譜舊譜序集』 에서 추출)	文集 收錄 (民族文化推進會 編 『韓國文集叢刊』 에서 추출)	奎章閣 所藏 (奎章閣 四部分類 『一般族譜』에서 추출)	
慶州金氏	1685(숙종 11)	李敏敍		慶州金氏族譜序 (『西河先生集』 권12)	慶州金氏世譜 (奎2991)	
慶州金氏	1685(숙종 11)	金益昌			慶州金氏世譜 (奎2991)	
慶州金氏	1685(숙종 11)	金鼎台			慶州金氏世譜 (奎2991)	
慶州金氏	1685(숙종 11)	澣			慶州金氏世譜 (奎2991)	
慶州金氏	1685(숙종 11)	金杭			慶州金氏世譜 (奎2991)	
德水李氏	1686(숙종 12)	李端夏		德水李氏宗系 圖列傳跋 (『畏齋集』 권5)		
谷山延氏	1689(숙종 15)	宋時烈	舊序(231면)	延氏族譜序 (『宋子大全』 권139)		
德山李氏	1689(숙종 15)	李曄	德山李氏世譜 序(108면)			
恩津宋氏	송시열 생존 연대 (1607~1689)	宋時烈		宋氏別譜序 (『宋子大全』 권138)		
富平李氏	1690(숙종 16)		庚譜序(113면)			
軍威方氏	1690(숙종 16)	方萬表	舊序庚午 (114면)			

성 관명	연대	저자	자료의 출처			비고
			舊譜序集 (鄭炳沆, 『韓國族譜舊譜序集』 에서 추출)	文集 收錄 (民族文化推進會 編, 『韓國文集叢刊』 에서 추출)	奎章閣 所藏 (奎章閣 四部分類 『一般族譜』에서 추출)	
木川馬氏	1691(숙종 17)	朴世采		跋木川馬氏族譜 (『南溪先生朴 文純公文正集』 권12)		
泗川睦氏	1693(숙종 23)	睦昌明	舊譜序(233면)			
完山崔氏	남구만 생존 연대 (1629~1693)	南九萬		完山崔氏族譜序 (『藥泉集』 권27)		
海州鄭氏	1694(숙종 20)	鄭重徽	舊譜序(235면)			
慶州金氏	1694(숙종 20)	金柱臣	舊譜序(239면)			
咸陽朴氏	1694(숙종 20)	朴慶後	甲戌譜序 (241면)			
密陽孫氏	1695(숙종 21)	孫佺	密陽孫氏族譜 舊序(243면)			
宜寧南氏	1697(숙종 23)	南九萬	宜寧南氏族譜 序(245면)	族譜序 (『藥泉集』 권24)		
豐川任氏	1697(숙종 23)	任相元		族譜序 (『恬軒集』 권29)		
禮安李氏	李惟樟 생존 연대 (1625~1701)	李惟樟		禮安李氏族譜序 (『孤山先生文 集』 권5)		
昌寧曹氏	吳道一 생존 연대 (1645~1703)	吳道一		昌寧曹氏族譜序 (『西坡集』 권17)		

【附表 2】奎章閣 소장 족보의 姓貫 분포

		조선시대 수집 (문서번호 ‘奎’)	1910년 이후 수집 (문서번호 ‘古’)
유력성관	개수	15	1
	명단	南陽洪氏, 大邱徐氏(3종), 東萊鄭氏, 潘南朴氏, 安東金氏, 全州李氏, 平山申氏, 豐山洪氏, 豐壤趙氏(3종), 海平尹氏(2종)	坡平尹氏(野城尹氏)
중간성관	개수	21	5
	명단	慶州金氏, 杞溪俞氏(2종), 密陽朴氏, 楊州趙氏(3종), 礪山宋氏, 驪州李氏, 驪興閔氏(2종), 延安金氏, 龍仁李氏, 全義李氏, 昌寧成氏(3종), 昌寧曹氏, 淸州韓氏, 淸風金氏(2종)	安東權氏(1476年刊 ‘成化譜’), 淸州韓氏(3종), 昌寧成氏(兪樞公派譜)
기타성관	개수	21	20
	명단	居昌劉氏, 慶州裴氏, 慶州李氏(2종), 慶州鄭氏, 金海金氏, 綾城具氏, 白川趙氏, 奉化鄭氏, 三陟沈氏, 星州裴氏, 順興安氏, 新安朱氏, 潁陽千氏, 全州金氏, 昌原孔氏, 昌原黃氏, 草溪鄭氏, 陝川李氏, 海州鄭氏, 海州崔氏	高氏, 廣州李氏, 金海金氏(2종), 金化金氏, 羅州羅氏, 驪州李氏, 寧越辛氏, 龍宮全氏, 仁同張氏, 長鬐鄭氏, 全氏, 眞城李氏, 晉陽河氏, 忠州洪州石氏(2종), 坡平金氏, 河東鄭氏, 咸陽呂氏, 興城張氏
만성보류	개수	3	11
	명단	蔭官世譜, 東國世譜, 堂號備攷萬姓氏譜	簪譜, 靑丘氏譜, 靑丘簪閥, 縉紳世譜(2종), 讐嫌錄, 三韓華族, 東獻姓譜, 東姓考略, 東國氏族攷, 百氏譜
기타	개수	9	0
	명단	梁文襄公外裔譜, 氏族大全綱目(중국), 先儒姓氏(중국), 三韓張氏長房世系全譜(중국), 慕堂內外孫錄, 金氏分貫錄, 繼後抄錄草記, 河忠烈公貫系辨誣錄, 李氏世代錄	
총계		69	37

• 규장각 소장자료 四部分類 중에서 史部 > 譜系類 > 一般族譜로 분류된 것을 대상으로 하였다.

• 유력성관/ 중간성관/ 기타성관의 구별은, 기존 연구에서 19세기 초·중반(순조~철종대)의 문과급제자, 당상관 승진의 후보자라고 할 수 있는 都堂錄 입록자의 배출 비율을 기준으로 ‘유력한 큰 성관’ 15개, ‘중간성관’ 32개를 분류한 결과를 기준으로 하였다(남지대, 1990 『중앙정치세력의 성격』 『조선정치사 1800~1863』(上), 170~171쪽 참조). 19세기 이후의 통계를 근거로 파악한 유력성관이므로 조선 후기 명문가문의 현황을 전반적으로 반영하는 명단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본 표에서 다루는 족보는 奎章閣이 창립된 18세기 후반인 1776년(정조 즉위년) 이후에 수집된 것이고, 19세기의 별열가문은 黨色으로는 주로 西人 - 老論에 속하면서 이미 18세기 영조·정조대의 탕평정국에서 꾸준히 성장해온 전력을 갖고 있으므로 규장각 자료로 수집된 족보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Edward W. Wagner, 『1476年 安東權氏族譜와 1565年 文化柳氏族譜 — 그 성격과 意味에 대한 考察 —』 『石堂論叢』 15, 1989, 동아대학교 석당전통문화연구원.
- 權寧大, 1981 『成化譜攷』 『學術院論文集 제20집 — 人文·社會科學篇 —』, 대한민국학술원.
- 金龍善, 『高麗時代의 家系記錄과 ‘族譜’』 『李基白先生古稀記念韓國史學論叢』, 1994, 일조각.
- 盧明鎬, 1979 『山陰帳籍을 통해 본 17世紀初 村落의 血緣樣相』 『韓國史論』 5.
- 盧明鎬, 1995 『(고려시대) 가족제도』 『한국사』 15.
- 노명호, 1999 『한국사 연구와 족보』 『한국사시민강좌』 24, 일조각.
- 朴丙鍊, 『韓國의 傳統社會와 族譜읽기 — 葛藤과 一體化, 差別과 同化의 二重的 컨텍스트 —』 『藏書閣』 1, 199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成鳳鉉, 『固城李氏 先世外家族譜』와 『八高祖圖』 檢討, 『古文書研究』 24, 2004, 한국고문서학회.
- 宋俊浩, 1980 『韓國에 있어서의 家系記錄의 歷史와 그 解釋』 『歷史學報』 87.
- 宋俊浩, 1987 『族譜를 통해서 본 韓·中 兩國의 傳統社會』 『斗溪李丙燾博士九旬 紀念韓國史學論叢』(宋俊浩, 1987 『朝鮮社會史研究』 [일조각]에 재수록).
- 심승구, 2000 『朝鮮初期 族譜의 刊行形態에 관한 研究』 『國史館論叢』 89, 국사편찬위원회.
- 오영선, 2001 『조선초기 家系記錄에 대한 일고찰』 『典農史論 — 松籃李存熙教授

- 停年紀念號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 陸貞任, 2006 『宋元代 族譜修撰과 그 社會史的 意義』 『韓國史學報』 22(고려사학회).
- 李樹健, 2003 『한국의 성씨와 족보』(한국의 탐구_25), 서울대학교 출판부.
- 李樹健, 1992 『朝鮮前期 姓貫體系와 族譜의 編纂體系』 『朴永錫教授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 李樹健, 1994 『朝鮮後期 姓貫意識과 編譜體制的 變化』 『九谷 黃鍾東教授 停年紀念 史學論叢』.
- 李樹健, 2003 『한국의 성씨와 족보』,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종서, 2003 『高麗後期 이후 ‘同氣’ 理念의 전개와 血緣意識의 變動』 『東方學志』 120.
- 李鍾日, 2002 『18·19세기 韓中 族譜上的 嫡庶表示와 그 身分史的 意義』 『東國史學』 37, 동국사학회.
- 이창수, 2002 『계보자료의 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33권 3호.
- 池斗煥, 1998 『朝鮮前期 宗法制度 정착과정』 『조선시대 사상사의 재조명』, 역사문화.
- 車長燮, 1997 『朝鮮時代 族譜의 編纂과 意義 — 江陵金氏 族譜를 중심으로 —』 『朝鮮時代史學譜』, 조선시대사학회.
- 차장섭, 2002 『조선시대 족보의 한 유형 — 삼척김씨 족보를 중심으로 —』 『大丘史學』 67.
- 차장섭, 2006 『綾城具氏 族譜의 刊行과 그 特徵』 『韓國史學報』 22(高麗史學會).
- 崔在錫, 1979 『朝鮮時代의 族譜와 同族組織』 『歷史學報』 81.
- 崔在錫, 1983 『韓國家族制度史研究』, 一志社.

Abstract

The Compilation of *Jokbo* (族譜, Genealogical Table) in 15~17 Centuries Korea: Focusing on the Content Analysis of Prefaces and Epilogues of *Jokbo*

Kwon Ki-seok

Jokbo, a genealogical document about the kinship of a lineage/clan or a family in Korea, is a result of efforts to comply with the Confucius morality and practices of *yangban* (兩班) or *sajok* (士族), the noble class of Korea in Joseon period. It shows a historical change in which the Confucian family ethnics and enlightenment were widespread in Joseon society. This paper investigated prefaces and epilogues of *jokbo* published during 15~17 centuries when the genealogical table called *jokbo* appeared and was spread rapidly among the ruling classes. It mainly seeks to explain the genealogy consciousness of the editors of *jokbos* and the change of human relationship network in Joseon *sajok* society by analyzing the editing and publishing processes.

The editors of *jokbo* in the first half of Joseon period had already been exposed to the Chinese genealogical culture, and intended to make a model of the famous genealogical tables of China. But the extents of recorded descendants were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China. Chinese genealogical tables included only patrilineal descendants sharing the same great-great-grandfather, whereas Korean editors traced and recorded all descendants irrespective of paternal or maternal descent up to the traceable degree. These editing forms reflect everyday kinship consciousness making no distinction between son's child and daughter's in those times.

After the 17th century, a sense of duty toward the practice of *jongbeop* (宗法, clan rules) was strengthened and the perception that a person sharing the same family name is the same family was spread. As a result, relatives with different family names were excluded in genealogical records. Meanwhile, relatives with the same family name,

who had various localities and social status, were recorded more widely in *jokbo*. The phenomenon became obvious that relatives from the uncertain ancestral origin or a different *bongwan* (本貫, ancestral hometown) were included with a form of *byeolbo* (別譜, special or supplementary table), if they had only the same family name. Through these editing forms of *jokbo*, it can be presumed that the structure of human relation network in *sajok* society was changed amidst the fact that people having various localities and social status were related transcending mere consciousness of kind between central bureaucratic families.

Keywords: *jokbo* (genealogical table), prefaces and epilogues of *jokbo*, *nae- oebo* (*jokbo* including cognates), *dongseongbo* (*jokbo* including the patrilineal kin only), *byeolbo* (supplementary table of *jokbo*), human relationship network